

## <토론> "영·한·중 문화소 번역전략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석철(중국, 길림외국어대학교)

이 연구는 영·한 및 영·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에 대해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에 적용된 번역전략의 적합성을 탐구함과 더불어 영·한 및 영·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의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학 번역에서 문화소의 정보 전환이 가장 큰 난제로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적 거리' 이론으로 문화소에 대한 번역사의 개입과 보상을 살펴본 이빈 선생님의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출발텍스트 중의 문화소가 다양한 언어로 전환될 경우, 그 번역 양상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것은 타언어권에서의 문화소 처리기법을 거울로 삼아 도착텍스트의 정보성과 이해용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한 문화적 거리와 번역 거래비용 함께 고려하여 문화소 번역전략의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점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가 비단 전문번역가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번역학습자에게도 번역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번역기법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문에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에서의 '모사'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번역에서 '모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신데렐라'를 '콩쥐팍쥐'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직접번역'에서의 '모사'를 직역 또는 '단어 대 단어'방식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형태적이나 통사적 전환 없이 그대로 TT에 옮기는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사'와 '유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명절'이나 '사고방식'에서 든 사례와 같이 영·중 번역은 영·한 번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모사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분석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문화적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번역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면서 번역전략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 거리에 대한 판단은 다분히 번역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객관적, 또는 간주관(間主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자 선생님의 설명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3. '5.2 정보수집비용 발생 가능성' 부분에서 SL 모국어 번역자와 TL 모국어 번역자의 정보수집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표 6>과 <표 7>를 보면 중재 전략에서 비용이 모두 높다고 적었습니다. 가령 영·한 번역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인 번역자와 한국어

가 모국어인 번역자가 중재 전략 사용에 있어 비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가 모국어인 번역자보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번역자가 중재 전략(예로 문화 대체) 사용 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유의미한 발표내용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하여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